

시 론

한국 민주주의의 기로?

정 해 구

정해구 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우리 사회가 다시 보수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최근 강하게 받곤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담론이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보수언론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별로 새 로울 것도 없어 보이는 '뉴라이트' 운동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리라.

물론 장기적으로 이 같은 보수화 경향이 맞는 진단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문제이다. 보수화의 경향이, 일견 새로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세력의 부진에 대한 반사적 결과인 측면도 없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튼,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많은 도 전과 장애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치와 사회 곳곳에 그런 징후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징후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근래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다. 1990년대 말 IMF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은 지속되 고 있고, 그로 인한 여러 부정적 결과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대면 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민주주의가 보다 평등한 인민들로 구성 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의미한다면, 그 기초인 경제적 평등이 약화되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심각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경제 개방과 그 속에서 의 재벌과 대기업의 경쟁력만이 향후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존과 발전 대책 인 것처럼 주장되고 있다. 물론 세계화의 시대에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이 야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국내적, 사회적 결과는 불가피한 것으 로 치부되고 있고,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진하기만 하다. 그 결과 우리의 민주주의는 사회 양극화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재 민주세력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그들은 한 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을 수용하고자 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이를 거부하고자 하고 있다. 전자가 참여정부의 모습이라면 후자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모습이다. 뿐 아니라, 이 같은 분열에 직면하고 있는 민주세력은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으로부터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지도,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도 못하는 낙후한 세력으로 치부되는 한편,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은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기도 한다.

요컨대, 세계화의 경향 속에서 이에 적극 편승하고 대처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주장, 즉 '세계화의 발전 담론'이 과거 '근대화의 발전 담론'의 뒤를 이어 부쩍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바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과거 권위주의세력의 후계세력인 한국 보수진영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고, 반면 민주세력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향후 우리 민주주의의 진보는 민주세력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이 새로운 상황에서 민주세력이 향후 민주주의의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힘을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사태 해결의 관건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경험, 즉 정치적 민주주의의 경험만을 간직하고 있는 민주세력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변화된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향후 1~2년 동안 전개될 정치일정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이 같은 향방을 결정할 정치적 전환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사회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발전 담론'으로 무장한 보수세력과, 이에 맞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민주세력이 차기 정권의 장악을 둘러싸고 격돌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일정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현재 새로운 보수화와 민주

화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민주주의가 처한 이 같은 상황의 시점에서, 『기억과 전망』의 이번 호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보수화와 민주화의 한 기로가 되었던 과거의 한 역사 경험을 살펴보고자 했다. 4·19의 '혁명'과 5·16의 '쿠데타'에 대한 고찰이 그것이다. 사실 전자는 한국의 근대적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었던 대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이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강조하고 주도했던 후자의 권위주의세력에 의해 봉쇄당하고 왜곡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민주화운동세력은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제시했던 것은 권위주의세력이고, 그 덕분에 그들은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세계화의 또 다른 흐름 속에서 이제 민주세력은 경제적 문제에 대해 인민들이 '더 붙어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민주세력의 전도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기억과 전망』의 이번 호는 향후 1~2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될 정치일정의 출발점이 될 올해 5월 지방선거와 관련,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화의 추세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또한 그것은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분권화 및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 속의 지방자치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측면, 즉 풀뿌리민주주의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